

퇴직 후 일자리 찾기에 성공하려면?

강창희 소장의 '투자 사랑방'



작년 연초에는 국내언론에서 크게 다루었던 화두의 하나가 "100세 쇼크"였다면 금년 연초에 들어서는 "퇴직 후 30~50년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하는 문제가 화두로 등장해 있다.

작년에는 "인생 100세 축복인가, 재앙인가?"와 같은 자극적인 내용이 경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아야 한다는데, 마음대로 세상을 뜰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하고 불안해 하지만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것이 작년 하반기를 지나 금년 연초로 들어서면서 부터는 "퇴직 후 30~50년 동안 무슨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와 같은 내용으로 관심의 대상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건강과 노후 생활비 때문에도 그렇지만 보람있는 후반 인생을 위해서라도 퇴직 후에 할일을 찾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일로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취업을 해서 수입을 얻는 일,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자기실현을 위한 일, 즉, 취미활동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상 세가지 유형의 일 중에서도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재취업해서 수입을 얻는 일이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의 대부분이 현역시절에 모아둔 자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에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가 55세 이상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준비없이 퇴직을 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이 청년실업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정년퇴직자가 재취업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별한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하다.

재취업 전략 5계명

재취업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재취업의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갖는 것이다.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퇴직 직후에는 마땅히 오라는데도 없는데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채 몇개월을 보낸다. 그동안에 소득이 줄어들어 따른 경제적 압박감과 가정과 사회내에서의 자기 존재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뒤늦게 재취업활동에 뛰어들어보지만 공백기간 만큼 취업은 더 어려워진다. 주위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경력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취업이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퇴직 전부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왔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재취업에 대한 강한 의지야말로 재취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다.

둘째는, 눈높이를 낮추는 일이다.

지금처럼 청년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허드렛일에 가까운 일일 경우가 많고, 이전과 똑 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여는 비교가 안될만큼 낮아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게 아니라 전 직장에서 연공서열에 따라 공헌도 이상으로 받았던 금액을 못받게 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눈높이를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내세울 수 있는 주특기를 갖는 일이다.

퇴직자를 채용하려는 회사들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보다는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냐를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재취업을 한다고 무작정 동분서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그에 맞는 직종과 업종을 정해서 효율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내세울만한 주특기가 없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취업자리를 알아보기 전에 주특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재교육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넷째는, 자신의 장점이나 주특기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이력서를 만드는 일이다.

가끔, 퇴직자들의 재취업알선을 부탁받고, 이력서를 살펴보면 담당 업무조차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자신의 주특기나 담당했던 업무는 물론, 해온 일들의 성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그 사람이, 채용 후에도 이전 직장에서 이룬 성과 이상을 달성해줄 잠재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다.

퇴직자들에게 재취업은 어렵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일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역시절에 구축해 놓은 인적 네트워크 뿐 아니라 다양한 인재은행, 시니어 워크넷이나 실버취업과 같은 특화된 채용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젊은 시절부터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두는 일이다.

이것이 100세까지 살지 110세까지 살지 알 수 없는 장수리스크와 노년에 자녀문제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자녀리스크에 대비하는 길인 것이다. 그런데, 이상에 언급한 어느 한가지도 퇴직 1~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는 대비가 어렵다. 20~30대 젊은 시절부터 장기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사회공헌 · 자기실현을 위한 활동에도 관심을

최근 몇 년전부터는 우리사회에도 NPO(Non Profit Organization)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를 해주는 일을 하는 한 NPO의 경우는 이 단체의 본부직원 50명 중 10명이 정년퇴직자이다. 이들은, 기본적인 노후생활비는 마련해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 겸 약간의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역시절에 100을 받던 사람이 30~40정도를 받고 일을 하면, 60~70은 사회공헌 활동 즉, 요즘 유행하는 재능기부가 되고 30~40은 용돈벌이가 되는 것이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력이 커지고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NPO의 역할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현역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하면 보람있게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취미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을 얻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원예가 취미인 한 전직교사는 취미삼아 연꽃 재배를 시작하여 짝짝한 수입을 올리는 연꽃 농장으로 발전시켰다. 그런가 하면, 재벌계 건설사의 전직 CEO는 미술대학에 학사편입 졸업한 뒤 지금은 화가로 등단하여 취미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있다.

물론, 앞에 소개한 재취업이나 사회공헌활동, 자기실현활동 중 그 어느 하나도 말처럼 쉬운 일은 없다. 우선, 수입을 얻기 위해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마땅한 일자리도 문제지만,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다 해도, 현역시절에 비해 훨씬 열악해진 근로조건에 어떻게 적응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생활비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사회 환원적인 활동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언론 등에 소개된 사례는 대부분 성공사례이므로 쉽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면 좌절감을 갖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남들이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서 한다는 각오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자기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을 얻는 방법도 선불리 시작을 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또한 주위의 호평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 후에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소신이나 긍지를 갖는 것이다. 학생 시절에는 교과서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의 결정이 옳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 우수한 사원이었다. 그러나 정년 후에는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소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 후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수입을 얻기 위해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공헌이나 취미 활동을 할 것인가를 확실히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공헌이나 취미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수입이 따라오거나, 수입을 바라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취미나 사회공헌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수입도 얻고, 남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자신의 취미에도 맞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